

선악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승리제단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이 죄가 되는 고로 선악과 자체가 죄요,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영이 마귀의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이 나라는 주체의식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육신을 부리는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는 말이 완전한 학설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높고 죽는다는 것을 기록해야 참성경이 되는 거요? 성경 속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또 다른 새로운 말을 한다고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하나님의 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안되어 있는 고로 그 차이를 제대로 기록해야 참성경이 되는 거요? 이제그대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선악과를 없애는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활동을 할 수 없고 마귀의 영이 활동을 하는 고로 마귀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고로 성경 자체가 마귀의 성경인 고로 하나님의 참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요?

선악과라고 했으면 선악과가 어떤 선악과라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 나와야 그것이 참성경이 말씀이지, 선악과라는 말씀만 기록해놓고 먹지 말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에덴동산에서 내쫓고 이제그대로 자손만대로 죽게 했다면 오늘날 사람이 죽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요? 그런 고로 그것은 마귀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저주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자세히 기록을 해줘야 그것이 참성경이 되는 거요?

그런고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마귀의 영이요, 하나님을 죽이는 영이

선악과인 고로 생명을 죽이는 거요? 사람이 죽을 때에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는 고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야 하는 거요?

하나님이 사람속에 마귀의 포로로 존재한다

사람속에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그대로 기록을 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알려줘야죠? 그런고로 마귀가 나라는 주체의식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기는 대로 움직이고, 나라는 주체의식이 육신을 부리는 대로 육신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럴까? 그렇게 안 하겠죠? 이 세상에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식한 사람, 미개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걸리면 처벌하니 법을 어기지 않겠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놓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그 자체만 알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가 없는 거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사랑의 영이요,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기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이 저절로 천국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참성경은 이제그대로 책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그대로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쓰면 그것이 참성경이 될까? 거짓성경이 될까? 참성경이 되는 거요? 이제그대로 참성경을 세상에 내놔야 할 때가 됐죠?

그런고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영적 말씀인 고로 영적 과일이요, 영적 과일은 영이 되는 고로 죽이는 영이요? 그런고로 죽이는 영이 선악과라는 사실을 밝혀주면 참성경이 되는 거요?

그런고로 성경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이, 현재 너희는 선



구세주 조희성님

악과를 먹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요? 마귀의 마음이 선악과인 고로 마귀의 마음을 먹고 있다 이 소리요?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마귀 마음을 먹지 말고 생명과일을 먹어야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생명과일은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요 마귀를 죽이는 마음이 생명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그대로 참성경 상에 기록해놓으면 전 세계 인류가 대환영을 하겠죠?

현재 정부의 고관인 사람이 1년 반 동안 승리회보를 본 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차원 높은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감탄을 하고, 이제그대로 우리제단 식구가 거의 다됐어요. “승리회보, 신문을 누가 편집을 했는지 어느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편집한 것보다 더 편집을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은 글 내용이 새로운 학설이니까 그렇지요?

겐어요? 안 믿는 사람을 쳐다봐도 뭘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 거야. 아시겠어요?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신에 씌운 사람을 바라보면 마귀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마귀의 영을 먹는다 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생명과일을 먹는다

완성의 이긴자, 구세주가 나왔으면 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인 고로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을 참성경에 기록을 해야죠? 이제그대로 마귀의 영이 선악과인 고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리는 말씀을 안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귀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뭘 먹는 거야? 선악과를 먹는 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귀 말은 듣지 않는 거야. 마귀 말은 듣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에게 쫓혀 있으면 마귀 말은 안 들려. 아시겠어요? 마귀 말이 들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 들리느냐 하면 마귀의 입을 벌렸을 때에 선악과가 들어오는 거요. 마귀의 입을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을 벌리고 있으면 선악과가 안 들어오는 거요.

선악과가 마음이야. 선악과가 이 세상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이 전부 뭐예요? 그게 전부 선악과야. 하나님의 생각 이외의 생각은 전부 다 선악과야.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가 무슨 죄라고? 죽을죄야, 그게. 이런 것을 다른 종교에서 알아? 장로교에서는 알지? 전도관에서는 알지? 침례교에서는? 순복음교회에서? 감리교? 천주교? 불교? 유교? 대순진리? 증산교? 그걸 모르면 종교야? 이걸 모르면 종교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죄가 뭘 줄 모르는 게 무

슨 종교야?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다 선악과

하나님 마음 이외에 인간의 마음은 전부 선악과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마음을 품는 그 순간 선악과를 먹는다 되는 고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안 먹고 전부 다 생명과일을 먹으면 여기 이 사람이 17세로 젊어질까, 안 젊어질까? 여기서 있는 사람이 5분도 안 되어서 17세로 변해,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젊어져, 안 젊어져? 오염이 자꾸 되니까, 그 죄를 담당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승리제단이라도 한 달에 한 명쯤 정도는 죽는 거야, 한 명쯤 죽어. 아시겠어요? 왜 1년에 한 명도 안 죽느냐 하면, 승리제단은 죄를 누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 이긴자, 완성의 이긴자 정도령이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는 거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알아? 알고 대답을 하는 거야, 덮어놓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 주장하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 고로 그걸 분별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엄청난 역사야. 십년 동안이면 여러분들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씩만 해도 수백 명이요? 그래 안 그래? 십년 동안에 여기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면 여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제단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고로 죽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면 생명과일을 먹으면 안 죽는데, 생명과일이 뭐냐 하면 죽지 않는 마음이 생명과일이요? 죽는 마음을 먹지 않게끔 죽지 않는 마음을 계속 먹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과일이요? 그 생명과일을 한 번만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일 초 일 초 계속 죽지 않는 마음, 생명과일을 먹어야 안 죽는 거예요.*

1991년 9월 21일 설교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된 지 14년 만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끝나자, 마흔네 살의 요셉은 애굽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임금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밭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네한테 곡식의 씨앗을 드리하고자 하니, 땅에 뿌리도록 하시오. 추수 때에는 그 5분의 1을 임금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식구들의 양식과 씨앗으로 쓰도록 하시오!”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합성을 질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숨을 굶주림에서 구해준 은인입니다. 우리들을 임금님의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러하여 요셉은 추수의 5분의 1을 임금님께 바치는 나랏법을 만들었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왕에게 바치는 토지법을 제정하지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요셉 나이는 쉰어섯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산 지도 여인간 17년이 되었습니다. 일백 사십칠 세의 야곱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세상을 떠날 날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야곱

야곱이 요셉을 머리맡에 불러 놓고 당부했습니다.

“요셉아! 내가 죽거든 나를 고향 땅 가나안에 묻어다오. 너의 조상의 무덤 곁에 묻히는 것이 내 소원이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멍피스 궁전 근방에 거하는 요셉에게는 본처 아스낫이 낳은 다섯 아들과 두 딸이 있었으며 또 첩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고센으로 갔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스물다섯 살이요 에브라임은 스물두 살이었습니다.

《4장 요셉》

(8)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 의자에 앉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루스벤엘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어 복을 하라하여 내가 이르시되 내가 너

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같은 첩의 자식도 내 것이듯이,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라. 이 두 아이 다음에 낳은 자식들은 너의 아들이니라. 너의 두 아들은 비록 나의 손자이지만 나의 열두 아들의 반열에 세울 것이며, 이 두 아이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은 형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하여 요셉이 차지할 반열에 너의 두 아들이 대신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13부족을 이룰 것이니라.

1 13부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

내가 밭타이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의 본처이자 너의 어머니 라헬이 도중(途中)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느니라. 가나안의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옆에 묻었노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들아, 지금 너희들도 이스라엘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멍피스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곳 고헤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아들 단은 비록 나의 이복형이지만 어머니 라헬의 품에서 자란 나의 친형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번째 막내아들 베냐민은 나의 유일한 동

에서 나온 후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르우벤, 시므온, 유다, 잇사갈, 스블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갓, 납달리, 파 등 12부족(또는 12지파)의 진영을 유지하였습니다(민1:49-50). 13부족 중에 나머지 한 부족으로써 레위지파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며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복종생이다. 단과 베냐민 이 두 분 형제에게 너희들을 맡길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의 풍습에 따라 살아야 하는 부모와 떨어져서 고헤 땅에서 이스라엘의 친족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아버지 요셉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맏 아들 므낫세는 궁전과 같은 집에서 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들뜬 마음으로 목축하는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 가까이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야곱(이스라엘)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

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자식, 야곱의 자식으로 불리기를 원하며,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습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므낫세가 한 족속을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또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라. 레아의 자식들과 실바의 자식들이 갈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세겜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세겜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됴기로 주노라.”*
안젤라